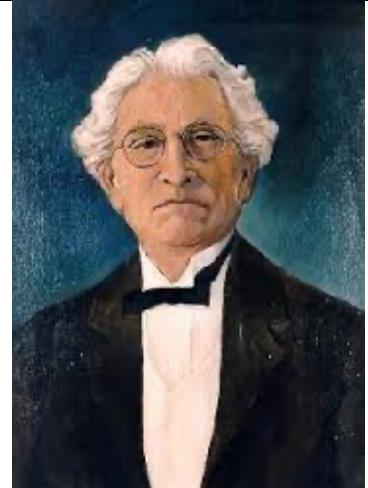


##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막 1:1-8)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Henry Morrison)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선교하면서 건강과 가족을 잃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고향인 미국으로 귀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후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 나간후 그가 항구의 출구로 나서자 레드카펫은 없었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도 멎은 후였으며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녁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냥을 갔다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들어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 길을 깔아 놓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죄를 깊이 회개하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서운한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쓸쓸한 풍경이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처럼 어딘가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환영해 주거나 맞이해 준 적이 없어 서운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할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 1) \_\_\_\_\_
- 2) \_\_\_\_\_
- 3) \_\_\_\_\_

2.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요한의 역할]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마 11:11)

- 1) 이사야: \_\_\_\_\_ (사 40:3-5)
- 2) 말라기: \_\_\_\_\_ (말 3:1)

3.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 1) \_\_\_\_\_ (벧후 3:3-4)
- 2) \_\_\_\_\_
- 3) \_\_\_\_\_

4. 하나님은 친히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들기도 하시며 때로는 사람을 앞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길을 직접 만들거나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 1) \_\_\_\_\_ (출 23:20)
- 2) \_\_\_\_\_ (신 1:30)
- 3) \_\_\_\_\_ (사 45:2)
- 4) \_\_\_\_\_ (신 31:3)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을 [방해]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며 그분의 길을 세례요한처럼 예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 주님, 지난 2년간 참혹한 팬데믹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으며,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주님이 길을 예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여호와 이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